

수원 주보

QR코드를 스캔하면
주보의 각 지면을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 제5주일

2019. 5. 19(다해) / 제1839호



제1대리구
상하성모세 성당
설 립 2004. 10. 1
주보성인 성 모세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사도 14, 21ㄴ-27

+ 제2독서

묵시 21, 1-5ㄴ

+ 복음

요한 13, 31-33 ㄱ, 34-35

화 답 송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 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하여라. ◎

부활 제5주일

숨쉬기조차 힘이 들어도 견뎌내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꺼이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헤어져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숨죽여 몰래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에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비단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상대에게 향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탁월한 공감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며 배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가족에게서, 연인에게서, 친구에게서, 동료에게서, 사랑은 삶에 활력을 주는 신비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살며시 들어왔다가 어느새 한가운데 자리하고 앉아서 온통 생각을 가득 채워 버립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고, 딱히 지우고 싶지도 않은 행복한 생각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입니다. 그의 낯빛, 표정, 말투, 손짓, 걸음걸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심하게 살핍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필요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짝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아픕니다. 사랑하기에 견딜 수 있지만, 받아주지 않거나 몰라줄 때는 섭섭합니다. 그래도 사랑은 기다리고 희망합니다. 비록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잘될 수만 있다면, 행복하기만 하다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밤새 서로 양식을 갖다 놓으며 ‘나 원 참!’하고 환하게 미소 짓는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좋기도 좋을시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형제들이 한데 모여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주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시기도, 질투도, 성냄도, 다툼도, 미움도, 원망도, 서로 사랑하는 이들 안에는 자리하지 못합니다. 도무지 그래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용서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사랑하기도 바쁜데 다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가서 이웃집 잔치를 도와야 합니다. 

글. 이근덕 헨리코 신부(교구 사목연구소 소장)

‘안티오키아 사건’과 ‘사랑’의 계명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오로와 바르나바의 1차 선교여행을 알려줍니다. 이 선교여행은 45-49년경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오로가 이방인들의 선교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다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오로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는 어떠한 계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까요?

갈라티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는 그 배경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다가, 야고보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오로가 베드로를 질타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안티오키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안티오키아 사건에서 사도들의 잘못된 판단과 사도들 간의 갈등을 보게 됩

니다. 야고보는 잘못된 판단으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종용하였고, 베드로는 이 판단을 받아들여 이방인들을 멀리 합니다. 더욱이 베드로의 태도를 보고 다른 이들도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자 바오로는 베드로의 태도에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삶에서도 매우 자주 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사도입니다! 

글. 이수완 로마노(하상신학원 외래교수, 영성신학)

삶의 샘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요한 13, 34-

하나씩
한 걸음씩
당신을 담고 싶어요.

‘예수성심’(시내홀), 이효진 테라즈 수녀

수원교구의 교회사적 위상과 역할

1963년 설립된 수원교구는 본당과 신자수 등에서 한국 제2의 교세를 갖춘 역동적인 교구로서, 한민족 복음화의 중심교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위상은 바로 수원교구가 갖고 있는 ‘교회사적 역량’에서 나온다.

수원교구는 일찍이 100여 년의 모진 박해를 이겨낸 신앙선조들의 순교신심과 거룩한 순례자의 영성이 솟아나오는 순교의 보고(寶庫)를 이루어, “순교자와 성지의 교구”로 일컬어질 정도였다.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로 평신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한국천주교회의 초창기(18세기 말) 복음실천 운동의 중심지였던 수원교구는 이벽 요한 세례자와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등의 활발한 전교에 힘입어 한강의 수운(水運)을 활용하여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신앙공동체를 확산시켜 나간 초창기 한국천주교회의 요람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신태보 베드로와 정하상 바오로 등 수원교구의 신앙선조들은 1801년 신유박해의 광풍 속에서 폐허가 된 한국천주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곳곳에 교우촌을 건설하고, 중국에서 중국인 유방제 신부와 파리의방전교회의 모방, 샤스탕 신부, 앵베르 주교 등을 영입하는 데 앞장선 결과, 마침내 1831년 조선교구 설정의 일등공신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제와 함께 수원교구 지역 내 곳곳을 다니며 성사를 집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신자공동체를 튼튼히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적 신학교육을 받기 위해 1836년 중국 마카오에 파견된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제 프란치스코 등 신학생 3명의 출신지 또는 거주지가 모두 수원교구 지역이었으므로, 수원교구는 박해시기 한국천주교회 방인 성직자 양성의 못자리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부모와 형제, 친지들은 곧이어 닥친 1839년 기해박해의 시련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굳센 믿음을 드러냄으로써 오늘날 수원교구가 순교영성강화 등을 통한 순교자 현양과 순교신심 교육의 모범적 교구가 되게 만들었다. 

글. 원재연 하상바오로(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원)

영성의 향기

한 수도자가 어느 원로에게 청했다. '제가 지키며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로는 그에게 말했다. '자네가 모욕을 받고 참아낼 수 있다면, 그건 모든 덕행을 능가하는 훌륭한 일이라네'

- 사막교부들의 금언집 제15장 83

종악이, 종악이 엄마 복녀 이시임 만나

아침 출근길에 만나는 동네 호숫가의 이팝 나무들이 모두 웨딩드레스를 입은 듯 미색의 꽃들로 화사하다. 5월은 하얀 꽃들이 무수히 피어나는 때이다. 이팝나무와 야광나무, 찔레꽃과 아카시아까지. 그래서 인디언 아라파오 족은 5월을 ‘오래전에 죽은 이들을 생각하는 달’이라고 명명했다.

오래전에 죽은 이들 중 ‘종악이 엄마’로 불린 복녀 이시임 안나(1782~1816, 충청도 덕산)는 정다운 숙모처럼 친근하게 불러보는 이름이다. 몇 년 전, 경북 영양이 고향인 소설가 L선생님과의 식사자리에서 순교자 강완숙 골롬바의 일생을 소설로 준비하고 있다는 나의 소개말에, 자신도 고향에 내려오는 어떤 천주교 순교자를 소설로 써보고 싶었다며 들려준 얘기에서 처음 이시임 안나를 알게 되었다. 조선 후기, 한 천주학도 여성이 동정녀 공동체를 찾아가느라 강을 건너다 뱃사공의 완력에 의해 그와 혼인하여 살게 된다.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죽자, 이들 모자는 산속의 교우촌을 찾아 경북 영양 지방으로 간다. 그러나 곧 여기까지 박해의 불길이 덮쳐왔고 포졸들이 동네의 천주학도들을 굴비 엮듯 잡아가지, 그녀는 주위의 소나무 가지를 꺾어 십자가를 만들어 포졸들에게 보이고 대구감영으로 끌려가 참수당하는데 영양 지방의 무연고 묘지 하나가 바로 그녀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였다.

영양 지방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국천주교 회사에서 찾아보면 이 여성 순교자는 복녀 이시임 안나이고 복녀의 아들의 이름은 ‘박종악’이다. 이야기의 뒷부분이 구전 과정에서 덧붙여졌거나 아니면 교회사가 다 찾아내지 못한 복녀의 삶을 전해주는 디테일일 수 있다. 교회사 기록을 보면 네 살배기 종악이는 엄마와 함께 대구감영의 옥간에서 지내다 엄마 품에서 죽는다. 그리고 곧 복녀 이시임 안나도 순교한다. 꽃처럼 짧은 종악이와 복녀의 한 생을 듣고 읽으며 두 영혼은 하얀 찔레꽃잎으로 화해서 내 핏줄을 타고 흐르는 잇을 수 없는 이들이 되었다.

일을 마치고 어두워지는 신반포역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늘어선 이팝나무 가로수들이 피워낸 상앗빛 꽃에 또 다시 둘러싸였다. 그 모습이 ‘이밥’, 찰밥처럼 보여서 이팝나무라고 한다. 복녀와 어린 종악이가 대구감영의 옥간에 갇혀 지내던 1815, 6년은 대기근의 해로 감옥 안의 식량사정은 험악했다. 얼마나 굶주렸을까, 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이팝나무 꽃들은 더욱 수북수북 밥을 담은 모습으로 오래 전에 죽은 네 살배기 아가와 젊은 엄마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글. 이규원 사라(극작가)

제14회 교육 주간 담화(5.20~26)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데려다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참조)

‘생태 지킴이’가 됩시다!

사랑하는 교육자,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2019년 교육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오늘날 심각한 생태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생태 지킴이’라는 책임 의식을 깨달아 ‘생태 영성’을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이 회칙을 통하여 환경 파괴의 모습을 서술하고 그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인간이 불러온 생태 위기

오늘날 지구의 흙과 물과 공기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생명체는 점점 더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는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 살충제와 제초제 같은 독극물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21항 참조).

생태 영성의 회복

우리는 환경의 위기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205항 참조).

생태 지킴이의 역할

‘생태 지킴이’는 생태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생태적 회개 : 우리가 자연환경을 멋대로 남용하고 약탈하였음을 뉘우치고,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함께 발전하고 소멸한다는 생각을 잊지 맙시다.
- 생태적 실천 : 쉽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버리는 문화’를 바꾸고 최소의 자원을 사용하고 소비를 절제하며 재사용과 재활용을 늘 실천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생태 지킴이의 역할을 기쁘고도 행복하게 이어 가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019년 5월 교육 주간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

젊은이 “생명”을 외치다

2019 수원교구 생명수호대회

일시 2019. 5. 25(토) 10:00 - 16:00

장소 아론의 집 대강당



시간	내용	비고
10:00 - 10:30	접수	79
10:30 - 12:00	생명수호대회 개최미사	주례 : 종대리주교 / 헌혈증서 봉헌 및 전달식
12:00 - 13:00	점심식사	
13:00 - 13:50	1부 생명토크, 공연	출연 :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 김영재 외 다수
13:50 - 14:00	휴식	
14:00 - 15:30	2부 CPBC와 함께, 공연	출연 : CPBC, 류근지, 이노주사 외 다수
15:30 - 16:00	폐회식	기념품, 경품추첨



이성희(리노)
종대리주교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합창단



강영재(영라니)
개조 피아니스트



수원교구
비다눔에바 음악팀



류근지(베드로)
개그맨



김승애(엘레니)
cpbc 이나운서



가톨릭선양사도단
이노주사

주최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주관 생명위원회

협력기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 생명의 복음 60항

* 생명수호대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임신 10주 된 태아의 실물크기 알도양
벤티를 나눠드립니다.

곽기현·이택윤 신학생 부제 서품

수원교구 소속으로 이탈리아에서 유학 중인 곽기현(베드로)·이택윤(베드로) 신학생이 2019년 5월 4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부제로 수품 됐다.

부제서품식은 인류복음화 성 장관 페르난도 필로니 추기경 집전으로 거행됐다.

상현동 본당 출신인 곽기현 부제와 모전동 본당 출신인 이택윤 부제는 로마 우르바노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교구 소식

제2대리구 춘계 사제 연수 기간 중 본당 미사 안내

5월 22일(수)에는 제2대리구 내 모든 본당에서 미사가 봉헌되지 않으며, 말씀전례만 거행됩니다.

☎ 031) 360-7643 제2대리구 사무처

수원교구 하상출판사 휴무 안내

5월 20일(월)은 직원 워크숍으로 인하여 출판사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야미 본당 봉헌식

때 : 5.26(주일) 10:00

주례 : 문희종 주교

성녀 이소사 아가다

순교 180주년 기념 현양 미사

때 : 5.24(금) 11:00

☎ 031) 633-9531 단내성가정 성지

어능 성지 음악 피정

때 : 5.25(토) 11:00~16:00

주제 : 성모 성월

미사 : 박상호 신부

강사 : 김시연, 김수연

☎ 031) 636-4061

직암선교 후원회 5월 월례미사·피정

때 : 5.25(토) 14:30~19:00

곳 : 천진암 성지 광암 성당

내용 : 성시간, 촛불 기도, 미사 등

모집 : 후원 회원 및 성가대원

☎ 031) 268-2210, 010) 4174-4242

고초골 공소(파정의 집) 피정

때 : 5.28(화) 10:30~15:30

주제 : 순교자 영성 / 비용 : 2만 원(중식 포함)

☎ 031) 337-0470

천진암 강학

때 : 6.9(주일) 09:30~16:30

☎ 031) 764-5953

금주에 기억할 사제



양병묵(루카) 신부
2014년 5월 20일 선종

금주에 기억할 사제



박경식(루카) 신부
1969년 5월 21일 선종

금주에 기억할 사제



정주성(요셉) 신부
1995년 5월 24일 선종

가톨릭 신문 성지순례

6/12 발칸반도	12일 375만원
6/15 이스라엘	9일 360만원
6/27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48만원
7/ 5 바르셀로나, 파티마, 루르드	11일 395만원
02) 2281-9070 www.cttour.org	

가톨릭 여행사

6/ 3 크로아티아 메추고리에	12일 385만원
9/23 터키 그리스	13일 395만원
9/23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9/30 성모님 발현지 4개국	12일 375만원
02) 319-2533, 010) 5235-3533	

성물방

성모 성월에 묵주를 만들어 보자!
www.smb.kr
※ 묵주알, 십자가 등의 묵주재료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02) 447-7396, 010) 3161-4511

수원교구 성직자 묘역 이전 공지(미리내 성지 → 안성추모공원)

수원교구는 지난 3월 사제평의회(2019. 3. 19.)를 통해 현재 '미리내 성지'에 안치되어 있는 <교구 성직자 묘역>을 '안성추모공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미리내 성지에 안치되어 있는 선종 사제 묘역 이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유가족께서는 **교구 사무처(031-244-5001)로 2019년 5월 20일(월)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교구 방침에 따라 이장(면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2012년 선종한故人덕환 신부 묘소까지 이전).

※ 면례예식 : 5.31(금) 14:00. 미리내 성지 내 교구 성직자 묘역

제6기 통일 아카데미

때 : 5.29~6.26(매주 수) 19:30~21:00
 곳 : 권선동 성당 내 공동사제관 지하층
 비용 : 1만 원
 신청 : cafe.daum.net/minhwau
 ※ 사전 신청 필수
 ☎ 031) 417-5322 민족화해위원회

대건청소년자원봉사단 지도자 양성교육 기본과정

때 : 6.1(토) 09:20~15:20
 곳 : 제2대리구 안산문화원
 마감 : 5.22(수)까지
 신청 : www.cdsy.or.kr
 ☎ 031) 360-7921 (재)대건청소년회

응급처치 일반과정

때 : 1차 6.8(토), 9(주일)
 2차 6.15(토), 16(주일)
 내용 : 응급처치 일반과정(12시간)
 대상 : 청소년 활동 지도자 및 청소년
 ※ www.cdsy.or.kr
 ☎ 031) 360-7922 (재)대건청소년회

수원교구 제135, 136차 비다누에바

때 : 135차 6.21(금)~23(주일)
 136차 6.28(금)~30(주일)
 접수 : 5.20(월)~31(금)
 비용 : 10만 원
 인원 : 60명(선착순)
 신청 : v2.casuwon.or.kr
 ☎ 031) 360-7636 제2대리구 청소년1국

채용

교구청

홍보국 홍보직, 전산직 / 마감: 6.7(금)까지

본당

권선2동 본당 사무장 / 마감: 채용시
 매곡 본당 관리원 / 마감: 채용시
 오산 본당 관리장 / 마감: 채용시
 이천 본당 사무장 / 마감: 채용시
 ※ www.casuwon.or.kr '채용·공모'

기관·단체 소식

제5차 디딤길 성지도보 순례

때 : 5.25(토) 10:30
 곳 : 남한산성 성지~구산 성지
 일정 : 미사, 점심식사 후 도보순례
 준비 : 물, 간식 / 비용 : 추후 공지
 마감 : 5.22(수)까지
 참조 : cafe.naver.com/didimgil

수원교구 체나콜로(마리아사제운동) 지도와 미사

때 : 5.28(화) 10:00
 곳 : 교구청 5층 성당
 준비 : 목주, 합본책, 미사준비
 미사 : 김유신 신부
 ☎ 010) 9424-2701

수원ME 제38차 MR 부부 피정

때·곳 : 6.1(토)~2(주일), 가톨릭교육문화회관
 대 상 : ME 주말을 체험한 모든 부부
 ※ www.suwonme.or.kr
 ☎ 031) 251-2258 수원 ME사무실

2019 수원교구 성령강림 대피정

때 : 6.3(월) 09:00~16:30
 곳 : 성남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주제 : 성가정, 세상을 향한 복음
 (성가정 체험담 발표 등)
 강사 : 송영오 신부, 신상현 수사
 비용 : 무료
 준비 : 미사도구, 목주, 도시락, 컵, 돗자리
 ☎ 031) 251-4400 수원교구 성령쇄신봉사회

미사·피정

가톨릭 지성인 양성을 위한 영성강의 및 미사

때 : 5.20(월) 13:30~16:00
 곳 :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성당
 주제 : 연꽃과 십자가 / 비용 : 무료
 강사 : 이영석 신부
 ☎ 02) 705-4711 서강대학교

들꽃마을 수원 영성강의 및 미사

때 : 5.20(월) 14:00
 곳 : 판교성프란치스코 성당
 지도 : 최영배 신부(영성강의, 미사)
 ☎ 054) 955-4133~4

수맥 흙침대

공장직영, 거실소파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곤지암공장 전시 중
 명동성당 앞 1588-5335

스타키보청기

노인성 난청 상담·보청기 상담
 수원 이촌택병원 1층
 031) 232-1474
 임종혁(요한)

이오소피아 성지순례 2019

5/26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성지순례 6월6일 도착(선착순4명) 399만원
 6/ 5 마카오 심천 홍콩 김대건 신부님 발자취(선착순2명) 130만원
 10/ 9 멕시코9일(과달루페성모님 칸론 차첸이트사) 370만원~
 전 순례 출발확정 031) 239-2571 최금옥 최형(베드로)

교구 평협 50년사 사진 자료 수집

- 목 적 : 50주년 기념사 발간
- 마 감 : 5.31(금)까지
- 내 용 : 평신도 활동 사진
- 참 고 : 이름, 연락처, 소속 사진 내용 등 기재.
- 문 의 : 각 본당 사무실. ※ 사용 후 돌려드립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때 : 5.29~31, 6.10~12, 6.14~16,
6.19~22, 6.25~28, 7.5~7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내용 :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064) 796-9181 성 이시돌 피정의 집

제주 면형의 집 피정

일 반 : 5.31~6.2, 6.22~24,
7.1~3, 7.6~8
추자도 : 6.10~13, 6.16~19
내 용 :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
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왕복항공권 포함 예약 가능
☎ 02) 773-1463, 064) 756-6009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피아골 피정의 집·소록도 성당 피정

피아골 피정의 집 : 6.1~2, 6.15~16
6.22~23, 6.29~30
7.13~14, 7.26~28
소록도 성당 : 6.8~9, 6.22~23
7.6~7, 7.13~14
9.28~29, 10.5~6
※ 출발 : 사당역 1번 출구 7:10
(죽전, 신갈 7:30 승차)
☎ 010) 5388-5706

베네딕도회 성경 통독 8일 단식 피정

때 : 제67차 6.14(금)~22(토)
제68차 7.12(금)~20(토)
곳 : 성 베네딕도회 화순수도원
※ hsosb.or.kr 참조
☎ 061) 373-3001, 010) 3540-9001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때 : 6.22(토) 11:00~23(주일) 16:00
곳 :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
내용 :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비용 : 5만 원
☎ 010) 5490-5345 음성 꽃동네

모집·기타

가톨릭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봉사자 모집
마감 : 5.20(월)까지
면접 : 5.25(토) 14:00. 교구 사목연구소
대상 : 만24세 이하 청년으로 주일학교
교사회 또는 청년회에서 활동하
는 분
서류 : 참가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인원 : 15명
※ www.casuwon.or.kr '행사·모집'
☎ 031) 458-4327 교구 사목연구소

용문청소년수련장 직원 채용

때 : 5.30(목)까지
업무 :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www.yongmooncamp.or.kr
☎ 031) 774-6422

성물조각, 가구제작 수강생 모집

참조 : cafe.naver.com/cmc04
☎ 010) 5234-5044 가톨릭목공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9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 사회복지학 00명
박사 - 신학, 교의·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 사회복지학(실천·정책·행정) 0명
접수 : 5.20(월)~30(목)
전형일 : 6.14(금). 일반 및 편입학 2차 전형
※ www.jinhakapply.com
☎ 02) 705-8668 gsot.sogang.ac.kr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9월

정규입학 모집

대상 : 초5~중3, 장단기
주최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 법인
☎ 02) 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프란치스코와 함께

젊은이 해외성지순례

때 : 8.9(금)~19(월), 10박 11일
곳 :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아씨시, 라베르나 외)
대상 : 35세 미만 남녀(선착순)
주최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010) 5313-0241

본당 소식

'본당 소식' 보기 QR 코드 ▶
내용 : 본당 행사, 봉사자
모집
신청 : jubo@casuwon.or.kr



성 소 모 임	일 시	문 의	비 고
돈보스코 여자 재속회	수시	0507) 1306-1505	돈보스코여자재속회.com

안성시민과 함께하는
안법 110주년기념 공연



김권식(전자바이올린)
조갑용(태평소, 팽과리, 소리)
이부산(장구)
이정식(색소폰)
경기도립국악단(연주)
최근순(민요)



2019. 5. 25. Sat 19:00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

주관 / 안법중 · 고 총동문화  안법고등학교